

멕시코 경제 동향

□ 교역수지

- 5월중 멕시코 교역수지는 680백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
- 수출은 17,469백만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2.8%가 감소했는데 세부적으로는 석유부문이 52.1% 감소했으며, 비석유부문은 -28.2%
- 한편,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5.5% 감소한 16,789백만 달러를 기록했는데, 이중 소비재 감소폭이 43.6%로 가장 컸으며, 다음으로 중간재 (-34.1%), 자본재(-33.6%)

멕시코 5월중 교역수지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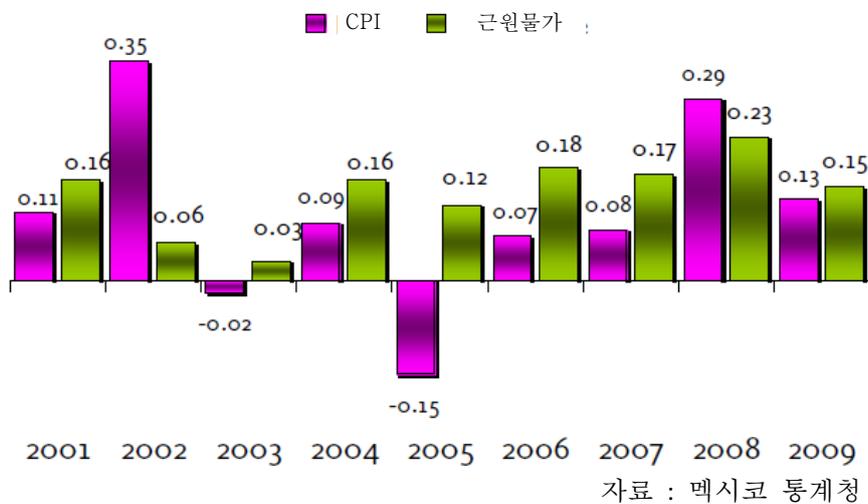
구 분	5월		1월 - 5월	
	백만달러	증감률 (전년동기대비)	백만불	증감률 (전년동기대비)
수 출	17,468.5	-32.8	84,948.3	-31.0
석유부문	2,395.8	-52.1	9,794.3	-57.1
비석유부문	15,072.7	-28.2	75,154.0	-25.1
농 업	708.2	-4.6	3,880.3	0.4
광 업	98.6	-30.4	545.4	-28.9
제조업	14,266.0	-29.1	70,728.4	-26.1
수 입	16,788.6	-35.5	85,949.1	-31.7
소 비 재	2,186.5	-43.6	11,585.1	-40.2
중 간 재	12,469.1	-34.1	62,592.8	-31.7
자 본 재	2,132.9	-33.6	11,771.1	-20.5
수 지	679.9	..	-1,000.7	-63.6

자료 : 통계청

□ 인플레이션

- 6월 첫 15일 기간중 멕시코 소비자물가지수는 0.13%가 상승했으며, 전년 동기간대비로는 0.16%p 감소
- 이에 따라 1월부터 6.15까지 누적물가상승률은 1.10%를 기록했으며, 멕시코 중앙은행은 연말 물가상승률 전망을 5.74%로 하향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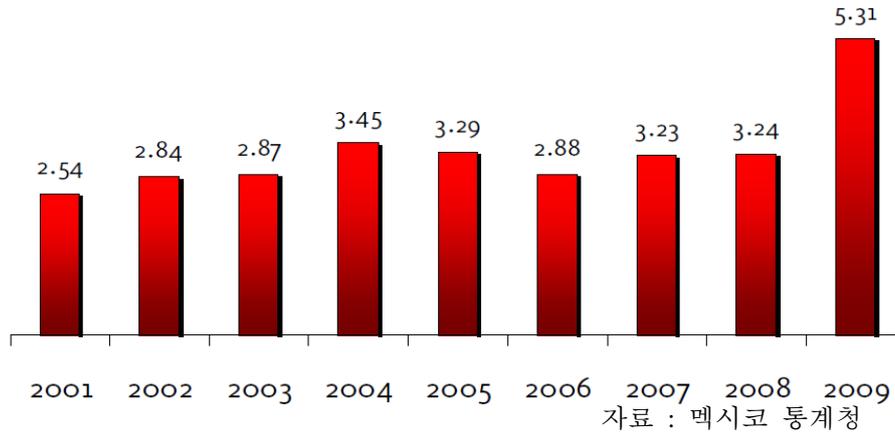
연도별 매 6월 15일 인플레이션 증감 비교표



□ 실업률

- 5월중 실업률은 전년동월 3.24%보다 2.07%p나 높은 5.31%를 기록했으며, 전월대비로는 0.68%p가 증가하는 등 세계경제위기 이후 악화 추세 지속
- 성별로는 남성이 3.12%에서 5.52%로 여성은 3.45%에서 4.98%로 늘어 상대적으로 남성의 실업률이 높아
- 참고로 경제활동가능인구 대비 취업률은 94.69%이며, 부문별 취업자 비중은 서비스업이 42.5%로 가장 높았으며, 다음으로 무역 19.6%, 제조업 14.8%, 농업 13.2%, 건설 8.1%, 기타 1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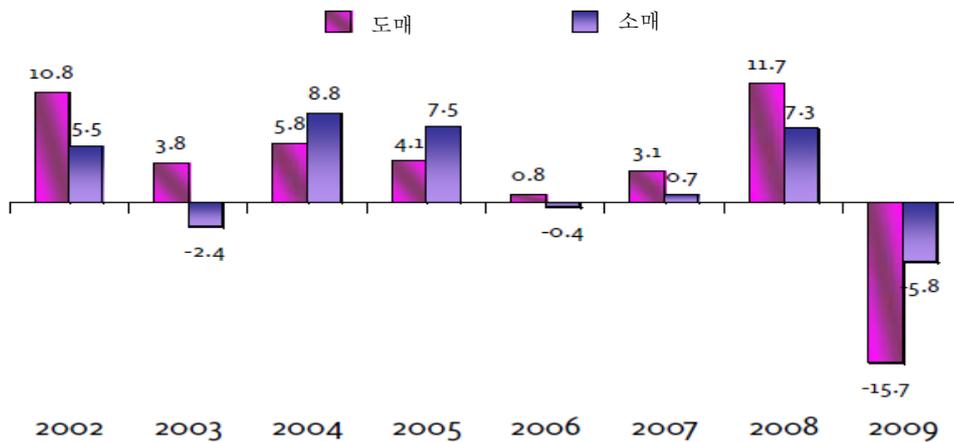
연도별 5월 실업률 증감 추이



□ 도소매 판매

- 4월중 도매 및 소매 판매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국내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15.7% 및 5.8% 감소했으며, 전월대비로는 도매는 2.2% 감소했으나 소매는 0.10%가 증가
- 한편, 도소매 부문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소매는 -3.2%, 도매는 -2.5%였으며, 소매 및 도매 부문 취업자 급여도 각각 3.1% 및 2.2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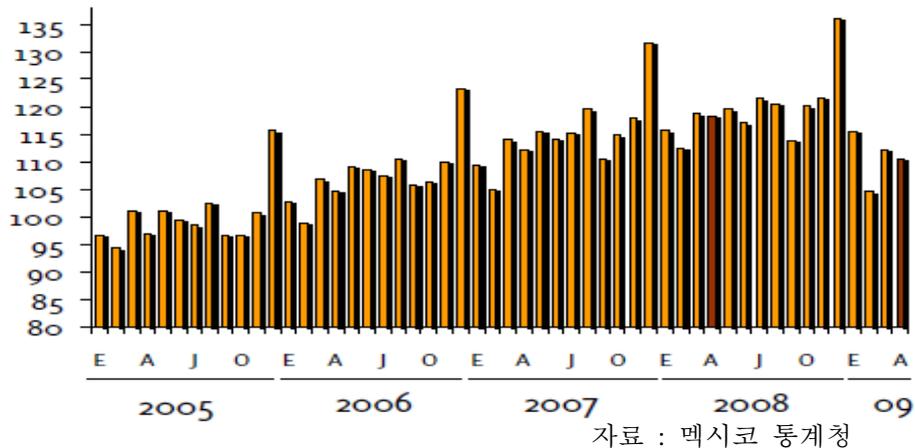
연도별 4월 도소매 판매 증감률 추이



□ 서비스부문 지표

- 금년 4월 비금융서비스산업지수는 전년동월대비 6.5% 감소한 110.6p (2005년 = 100기준)를 기록, 한편, 서비스부문 고용지수도 101.1p로 전년 동월(106.6p) 대비 5.5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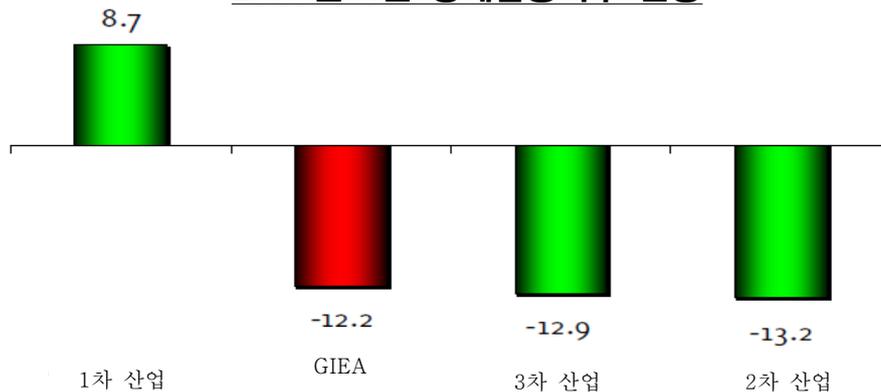
비금융 서비스부문 산업지수 증감률 추이



□ 경제활동지수

- 멕시코의 4월중 경제활동지수(Monthly Global Indicator of Economic Activity, GIEA)는 2차 산업(-13.2%) 및 3차 산업(-12.9%)의 감소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12.2%가 감소, 그러나 1차 산업은 8.7%가 증가
- 또한,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전월대비로도 0.36%가 감소하면서 감소폭은 완화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은 당분간 기대가 곤란

2009년 4월 경제활동지수 현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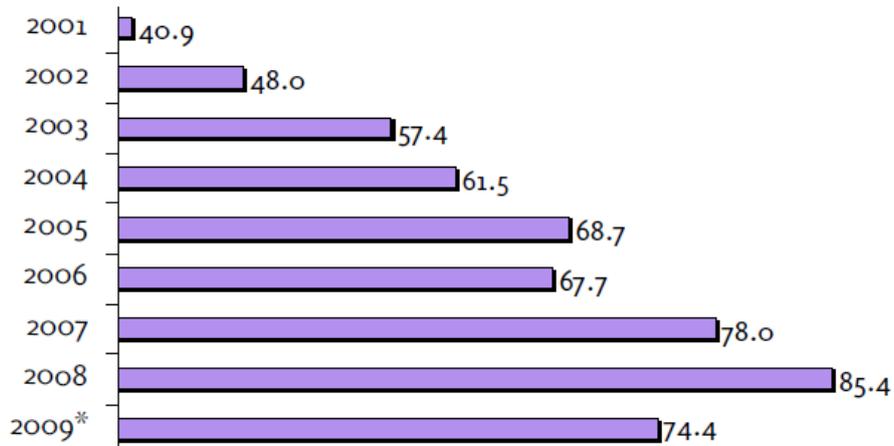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통계청

□ 외환보유고

- 6월 19일자 현재 멕시코 외환보유고는 전주대비 342백만 달러가 감소한 74,376백만 달러이며, 전년말대비로는 11,065백만 달러가 감소

연도별 외환보유고 추이

(단위 : 십억 달러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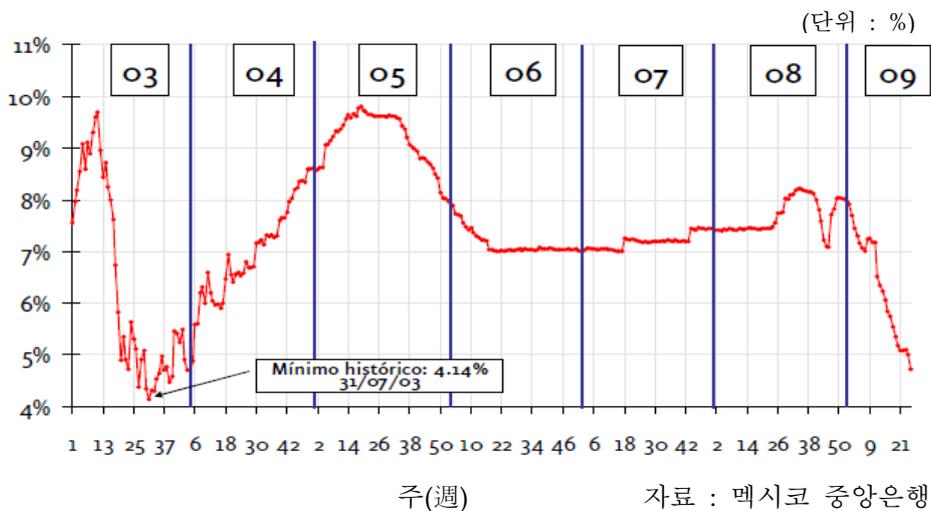
* 2009년은 6월 19일 현재 기준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금 리

- 6월 23일자 현재 멕시코 기준금리는 28일물, 91일물 및 175일물의 경우 전주대비 29bp, 20bp 및 18bp 하락해 각각 4.72%, 4.83% 및 4.89% 각각 기록하면서 2003년 이후 처음으로 4%대로 진입
- 한편, 5년 만기 채권 시세는 전주대비 67bp 오른 7.45%에 거래

연도별 주별 기준금리 동향 (CETES 28일물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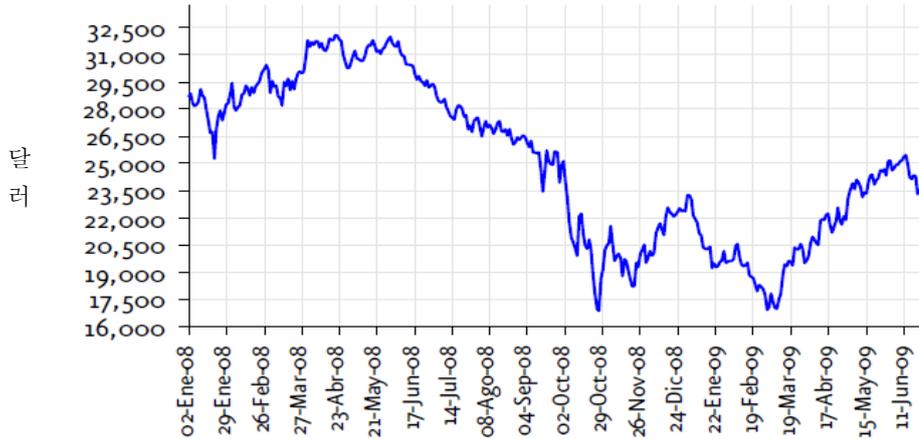


□ 주식시장

- 6월 26일 현재 멕시코 증시는 전주대비 0.76% 오른 24,458.23을 기록했으며, 연초대비 폐소화 기준으로는 9.28%, 달러화 기준으로는 14.50% 상승

멕시코 주식시장 동향

(단위 : 포인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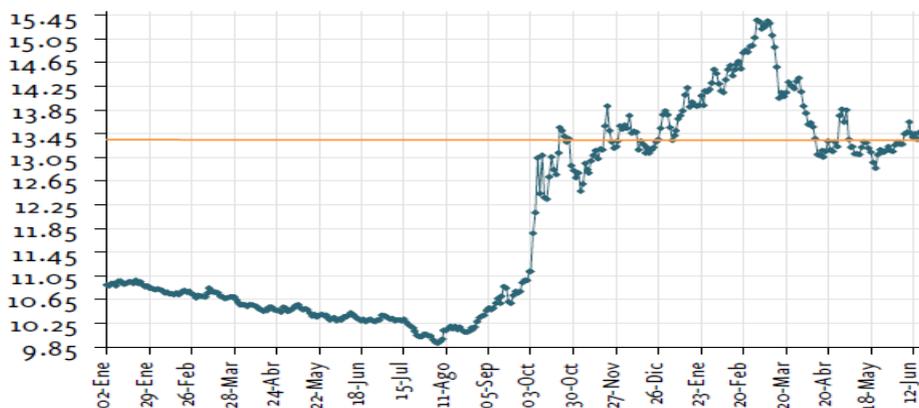
자료 : 멕시코 증권업협회

□ 환 율

- 6월 26일 마감 폐소화의 대미 달러 환율은 전주대비 12.25센타보 하락한 13.2023 폐소를 기록했으며, 금년 현재까지의 누적평균 환율은 연초대비 63.02센타보 하락한 달러당 13.8535페소로 내림세 지속

폐소화 대미 달러 환율 동향(2007~2009)

(단위 : 페소/US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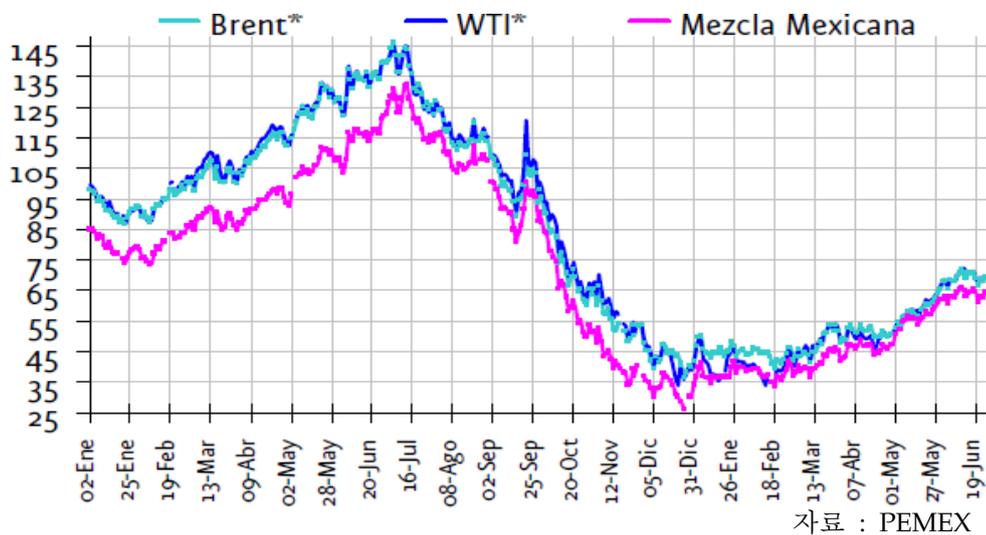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멕시코 중앙은행

□ 원유수출가격

- 6월 26일자 멕시코산 원유의 수출가격은 배럴당 64.10달러로 전주대비 0.68% 감소, 연초대비로는 87.32%가 상승했으며 동 일자 현재까지 올해 평균가격은 47.25달러를 기록
- 한편, 서부텍사스중질유 및 북해산브렌트유도 각각 0.56% 및 0.39% 하락한 69.16달러 및 68.92달러에 거래

원유수출가격동향(배럴당 가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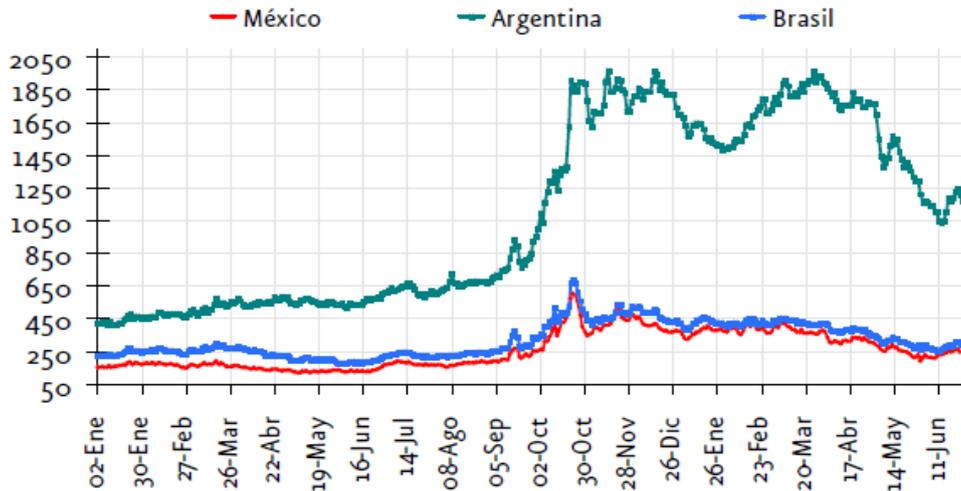


□ 국가위험도

- 6월 26일 현재 멕시코에 대한 JP Morgan의 개도국 위험지수(EMBI+)는 전주대비 6p 하락한 246p 기록, 아르헨티나도 1,134p로 49p 하락한 반면 브라질은 보합(291p) 기록

멕시코 국가위험도지수(EMBI+)

(단위 : basis point)



자료 : JP Morgan

2. 기관별 경제관련 전망

□ Conference Board, 멕시코 경제 단기적 측면 약화 지속되나 감소세 완화

- 글로벌 경제조사전문기관인 Conference Board는 4월 기준 멕시코의 선행지수와 동행지수를 산출 및 분석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경제 약화가 지속될 것이나 감소세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
- 동국의 4월 선행지수는 환율, 주가, 금리 및 건설부문 산업생산 등에서 긍정적인 지표가 형성 2.9%가 증가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 가능성 예상
- 한편, 동행지수는 고용률, 산업생산 감소 등 부정적 지표로 인해 0.2% 소폭 감소하여 감소세는 완화되었으나 단기적 측면에서는 침체 지속

□ IXE은행, 멕시코 금년말 기준 인플레이션을 전망 4.13% 하향 조정

- 멕시코 IXE은행은 올해 연말 인플레이션을 4.13%로 예측했는데, 이는 금년초 정부의 전기세 인하 조치 등 경기 부양정책의 효과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4.00%에서 3.39%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와 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 부족 등의 이유로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

□ JP Morgan, 멕시코 중앙은행 7월중 기준금리 25bp 추가 인하 기대

- JP Morgan은 7월 17일 개최예정인 멕시코 금리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.75%에서 4.5%로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
- 지난달 멕시코 중앙은행이 지난달 50bp 인하함으로써 기준금리가 최저치에 도달했으나 아직도 경기 침체 확장 위험 등이 도사리고 있어 추가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
- 그러나 JP Morgan은 다른 기관들의 전망과는 달리 3분기부터 경기 반등을 예상하는 등 하반기 긍정적 성과가 기대된다고 전망

□ Bancomer, 가장 심각했던 경기 후퇴 지나가

- Bancomer은행은 5월 교역수지가 최근 원유수출가격 인상과 상대적으로 수출보다 수입 감소폭이 큼에 따라 680백만 달러의 흑자를 시현한 이후 최악의 경기 후퇴는 지난 것으로 분석
- 이는 대외수요 약화 지속으로 제조업의 성장률이 -2.9%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국면이 해소된 것은 아니나, 지난 6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50bp 인하를 통한 멕시코 외환시장 안정, 경제 회복 효과와 미국 경제 회복 조짐 등 긍정적 요인이 많은 것이 그 이유

< 멕시코시티 사무소 제공 >